



29일 오전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1호사 변전소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력 공급이 끊겨 당분간 조업 차질이 예상된다. /뉴스시스

## ‘광광’ 폭발음, 검은 연기... ‘재난영화 방불’ 현대삼호 화재

“퍽 하는 소리가 나다 ‘광광’ 소리가...”  
29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일 반산업단지 HD현대삼호 변전소 화재 현장. 용이 입에서 불을 내뿜듯 변전소 출입구에서는 뿌연 연기가 쉴 틈 없이 뿜어져 나왔다.

연기로 뒤덮인 화재 현장 일대에서는 매캐한 냄새로 숨을 쉬기 힘들었다. 수십여명의 소방관들은 변전소 내부를 오가며 무더운 날씨, 뜨거운 열기와 불에 맞서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다. 소방관들의 얼굴과 방염복은 땀과 숯검댕이로 범벅이 됐다.

전쟁터 같은 화재 현장을 바라보던 현대삼호 협력업체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길의 조선소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아수라장 같은 작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한밤 중 수차례 폭발음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다. 곤이여

12시간 사투 벌인 소방관들 땀과 그늘음 범벅 인근 주민, 잇단 폭발음에 놀란 가슴 쓸어내려 협력업체 직원들 ‘혹시 일거리 끊길까’ 걱정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 나와왔다”며 “어두운 밤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소방차의 붉은 경광등 빛만 보였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숨을 내쉬면서 당장 먹고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는 “변전소가 완전히 다 타버렸다고 한다. 2주 안에 복구를 한다고 말하던데 상식적으로 그 기간 복구가 가능할까 싶다”며 “그 기간 화재 원인 조사도 어렵지 않겠는가. 전력이 끊겨 조선소가 멈추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당장 일거리가 끊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소 인근 주민들도 변전소 화재 진압 현장을 기웃거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주민 C씨는 “불이 변전소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전기 시설로 옮겨 붙을까 밤새 조마조마했다.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뛰고 코속에서 연기 냄새가 가시질 않는다”며 “여기는 조선소 때문에 다 먹고 산다. 부디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8일 오후 11시 21분께 HD현대삼호 1호사 변전소 지하 공동구에서 불이 나 12시간만인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모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메인 변전기가 불에 타 조선소 내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현대삼호 측은 “2주 안에 변전소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구에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조업 차질도 우려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 지면안내

- ▶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고의 살인 아니냐” 3면
- ▶ 현대삼호 변전소 화재, 최약댄 복구 수개월... 조업 빨간불 9면

## ‘두번 공모 다 무산’ 광주 통합수장고, 뼈저... 원점 재검토 부지선정 공모 두차례 유찰... 용역 중단 광주시 “건립 방향 등 원점에서 재검토”

광주시가 포화상태인 지역의 문화 예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이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부지 선정을 위해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용역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 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방형 광역 수장 보존센터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수장고 건립 부지 공모를 두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시는 지난해 8월 1차 부지 공모에 참여한 장성과 함평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에 실시한 2차 공모에는 나주와 장성이 응모했지만 부지 매입, 접근성 열악 등의 이유로 유찰됐다.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도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지를 검토했지만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다.

시는 당초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통해 타당성, 적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무산돼 중단하고 통합수장고 설립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포화상태인 광주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개방형 통합수장고 설립사업이 첫 출발부터 난항을 겪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광주시립미술관은 수장고 포화율이 95%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97%, 한국학중앙연구원은 98%, 김치박물관은 80%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수장품 증가량이 연평균 8200점으로 2028년 이후부터는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흠어져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6000㎡, 전시·교육시설·사무실 2000㎡ 규모의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을 추진했다.

신축되는 통합수장고는 소장품의 재질·종류·특성에 맞는 전문 수장고와 개별 박물관·미술관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3D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정밀분사 가공기 등 전문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타당성 용역 등이 완료되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예산을 산정한 뒤 국비를 확보해 2028년 전에 개방형 통합수장고를 완성할 계획이었다”며 “첫 출발부터 중단됐지만 방향을 다시 설정해 통합수장고 호남까지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 시설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 내달 수업 복귀... 특별학사 운영

의정 갈등으로 1년 5개월만에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가 내달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29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최근 의대생 2학기 복귀에 따른 학사일정을 공지했다. 의학과 3-4학년이 내달 4일부터 가장 먼저 임상실습을 시작한다.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2학년의 강의는 내달 18일부터 시작하며 올해 1학기 미수강 과목은 2학기 중 보충수업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수강한다.

학년별 2학기와 겨울방학 정규 및 보충 시간표는 내달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2024-2025학번 강의는 9월1일에 시작하며 1학기 미수강 과목은 2학기, 겨울방학, 내년도 여름방학까지 수강한다.

조선대도 이번 주 내에 의대생 복학에 따른 학사일정을 조율해 공지할 예정이다.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 수업을 먼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동안 수업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처분이 우려됐으나 정부의 학사 유연화 방침에 따라 밀린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돼 징계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승원 기자

##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